

far a way nearby

andrew01 art exposition tour 1 0 9 S A K 8 A
 SE O U L T O K Y O O S A K A
 遠くにあるもの
 近くにありもの
 앤드류01 芸術展 1998 ソウル 東京 大阪
 멀려 있어
 가까이 있어
 앤드류01 순회 전시회 서울 동경 오사카



Where It's At
 print club stickers 8 x 10.5 cm.
 ink jet on fabric 100 x 125 cm.
 OSAKA JAPAN 1998

アーティストの言葉 작가는 말한다

私の最近の仕事は、不在という概念を中心に据えている。対象、**アート**、作品、見る人の間にある大きな隔たりを狭めるのが、その目的だ。対象をよく見て、見たものの間に創造的な関係を築いていく。しかし、そこには何かと妨げがある。素材、道具、手法、コンセプト、エゴといったものが直接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邪魔をするのだ。表現手段に最小限のものを用いたり、コンセプトを重視する手法に干渉されるのは、直接的だからである。たまたまそこにあるものを持ってきて、イメージを借り、たとえば、街で見つけてきたちらしを重ねて、そこから新たなイメージを發掘していく、こういったテクニクもまた、

タ国に住んでいるとつい自分の文化と異質なところだけ注目してしまう。だが、そんなアプローチでは、物が見方がありきたりで、退屈なものとなってしまう。そこからは何も生まれないのだ。注意深く見事を見つめること、これが私のアプローチである。特に、誰も氣に留めて見ないような場所、の持つ空氣や裏が滲み出ているものを見つけ、それをそのままの形で呈示する。川面に映る影、物にも美というものは滲んでいるし、素朴らしい發見がある。無意識のうちに、素材や風景が、美的な價値を持ったり、人の感情を揺さぶる可能性を表現する。そのなんでもないものをアートとの中で呈示する。そうすると風景や素材に馴染みがあるため、見る人は作品を理解し、そこで歡喜の瞬間が生まれるのである。

寫真は、直接的で即時的なものだからこその心に訴えかけてくる。名所、跡が色褪せてしまうような安っぽい土産溜まりに映るネオンを私は撮り続けてきた。何千人もの人が無意識のうちにいつも見ているありふれた風景だ。しかも意圖的に、旅行者のへたな寫真や、川や雨に濡れた歩道を見下ろす何の変哲もない寫真と同じよう撮っている。

さらにもっと直接的なもの、それは街のいたるところにあるブリクラである。どの街角にもあるのだから、カメラはもう必要ないのではないか？ブリクラは移動できないし、顔を寫すためだけに作られている。そのため表現形式は限定されるが、かえって対象に集中できる。まず最初に、瓶を蓋た人間とフードの人間を復た絡ませた全身の寫真を撮ってみた。その後、背景となるカーテンをただ持ち上げて、ブリクラが周囲の風景を捕らえられるようにした。こうすることで、対象とそれが置かれているコンテクストはひとつになる。自分とはいうと、機会をうかがってボタンを押すだけだ。つまり、対象自身がそれ自身をあるがままに表現することを可能にしたのである。

私は最近には無常に関心、作業한다。다시 말해 the great divide between the subject, the artist, the artworks and the viewer. My job is to look carefully, and creatively relate observations - but so many things can interfere. Materials, equipment, techniques, concepts and ego get in the way of direct communication. Minimal and conceptual approaches to art, including ink painting, are attractive to me for their purity and directness. Using found materials, appropriating images and excavating found paper are other techniques used to present ideas and subjects with a minimum of interference.

의國에서 살다보면 살고있는 나라의 고유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은 보통 너무 뻥해서 이런 해석은 따분하고 무의미하다. 대신 나는 더욱 자세히 관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보통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순간과 장소의 멋과 미를 드러내는 무언가를 찾아 그런것들을 보여준다. 수면위의 잔영들, 너털너털한 포스터들, 싸구려 기념품들도 아름다울 수 있고 쓰레기 종이더미에서도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즉 알게 모르게 일상을 드러내는 초라한 제재와 풍경속에서 찾아지는 미학적이고 감동적인 가능성을 표현한다. 이들이 예술의 맥락에서 제시되었을 때, 관객들은 그 친숙함으로 인해 순간의 통찰력과 즐거움을 갖는다.

사진은 즉시 얻어지는 것이기에 흥미롭다. 나는 싸구려 기념품들과 밤에 울음눈이 표면에 비추어진 내운 사인들의 잔영들을 사진에 담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광경을 무의식적으로 본다. 내 사진들은 의도적으로 조야한 관광 사진이나 강을 내려다보는 통상적인 사진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거리 곳곳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는 사진가를 아용한 방법보다 더 직접적이다. 이미 거리의 구석구석마다 이미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스티커 사진기를 이용하면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에 대상에 집중을 가능케 한다. 처음에는 착역의 혹은 누드의 전신상 초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점차로 스티커 사진기가 배경의 이미지를 포착하게, 배경과 사진기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커튼을 들추어 사진기가 위치해 있는 공간의 풍경을 담았다. 이런식으로 내용과 형식은 하나가 되었고, 나의 역할은 스티커 사진기의 버튼을 눌러 대상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목적자 정도로 축소되었다.

far away nearby

andrew01 art exposition tour 1009 SAK 8A
 SE O U L T O K Y O O S A K A

遠くにあるもの

近くにあるもの

안드류01 藝術展 1998 서울 동경 오사카

멀리 있었

가까이에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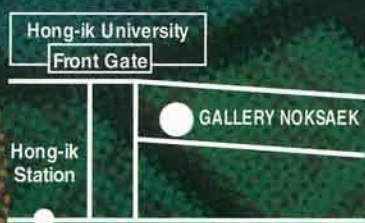
앤드류01 순회 전시회 서울 동경 오사카

Schedule

Gallery Noksaek

September 25
 October 3
 Opening 5:00 ~ 9PM

Seoul Korea



綠色갤러리
 GALLERY NOKSAEK

405-6 Seokyo Dong,
 Mapo-Ku, Seoul, Korea
 Ph: 323-4941

International Art Festival '98 Tachikawa

November 1
 November 11
 Opening 1:00 ~ 9PM

Tokyo Japa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achikawa '98

For information and directions, Please call: 042-537-0871

Tank Gallery

November 6
 November 20
 Opening 1:00 ~ 4PM

Osaka Japan



tank gallery

2-10-12 Nishi-shinsaibashi,
 Chuo-ku, Osaka, 542, Japan
 Ph: 06-211-4522

Blue Nile Gallery

November 6 -
 November 16
 Opening 5:00 ~ 9PM

Osaka Japan



Blue Nile

1-4-13 Dotonborri, Chuo-ku,
 Osaka, 542, Japan
 Ph: 06-213-7010



Lilies (Spring)
excavated porno posters
35 x 50 cm.
SEOUL KOREA 1997